



대상농장의 얼리지 않은 최고급 돼지고기 하이포크가 경향신문사의 '97 상반기 히트 상품상을 수상하였다.

이는 신선육제품이 각종 언론매체 및 케팅 리서치 기관에서 선정하는 히트 상품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에 더욱 의의가 크다.

93년 국내 시장에 첫선을 보인 뒤 불과 3년만에 돼지고기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하이포크는 최고급 종돈만을 골라 엄격한 위생관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돼지고기 특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게 특징이다. 특히 얼리지 않

은 냉장육만이 갖는 신선함은 기존 돼지고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맛을 자랑한다.

대상농장은 하이포크를 내놓은 첫해 일본에 52억 3천여 만원 어치를 수출하는 등 63억 1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지난해에 이보다 5배 가량 늘어난 3백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.

올해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백10억원 어치를 일본에 수출하고 내수시장에서도 3백4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.